

美, 북한 남침에 대비한 시뮬레이션 실시

- Win-Win 전략 위해 스마트 무기 필요성 강조

미국 국방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2006년 미군이 한반도와 걸프지역의 두 지역에서 동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쟁하기 전에 반드시 스마트무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미국방부의 컴퓨터 운용요원들은 TACWAR라는 시스템으로 북한이 남침에 대거 남침할 경우를 가상하고 war game 시뮬레이션을 하였다.

그리고 한반도처럼 이라크가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침공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시뮬레이션하였다.

소식통은 지금 미국방부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두 지역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전하였다.

이중 하나는 북한군이 서울 근교 100km 가량 진격해 올 경우, 정밀무기(PGM : Precision Guided Weapon)인 스마트무기를 사용, 격퇴하여 소강상태로 유도하는 개념이다.

시뮬레이션에는 이미 군사적으로 재고되어 있거나 배치된 서로 다른 30종류 가량의 첨단 폭탄들이 war game 프로그램에 동원되었다고 한다.

이 시뮬레이션 결과는 깊은 전장에서 동원되는 공격무기의 수량과 미군의 작전지역을 보여 주었다.

이것은 적의 C²망 파괴와 군수지원을 차단하고 전방공격선을 와해시키는 곳에 무장된 미군이 적의 저지선을 확보하는 의미도 있었다.

이 연구의 첫 부분은 합동 원거리 유도무기와 Tomahawk순항미사일과 같은 정밀유도무기 혼합에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

둘째 부분은 1997년에 미군의 구조적인 재편성과 스마트무기들을 발사할 플랫폼이 좀더 커야 할 이유를 다룬 예정이다.

이 연구(시뮬레이션)는 4년마다 美 군사력을 검토하는 프로그램과 미래에 필요한 무기시스템이 갖는 핵심역할의 정의를 도출하는 목적이 있다.

이 전략적 검토는 다음 해에도 계속될 美 군사력 개발 계획아래 무기개발 프로그램과 생산수량이 극적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로 기대하고 있다.

예로써 레이저폭탄 이상으로 ATACMS(Army Tactical Missile System)를 선호한다면 美 국방부관리들을 육군에 투자하는 전투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육군소식통은 육군 고위장교들이 이미 war game 결과로 ATACMS를 끈질지게 권장하고 있고, 이것은 모든 기대감을 충족시킬 만큼 성능이 우수하다고 한다.

또한 만약 표적이 ATACMS 미사일의 사거리 안에 있다면 지금 당장 표적을 없앨 수 있으며, 결국에는 ATACMS를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시뮬레이션 연구는 육·해·공군간에 경쟁과 논쟁을 불러 일으켰고, 이전에 처음 수행한 war game 결과도 예외가 아니었다.

war game을 수행한 이래 합동수뇌부에서는 재고되어 있던 스마트무기가 고갈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자원평가 부서는 해·공군의 항공대요원에게 공급되는 탄과 출격횟수를 감소시키는 것을 납득시키고 있다.

무기전문가는 효용도가 높은 무기(탄)를 동원하여 운용(시뮬레이션)하면 소기의 결과(표적에 정확한 타격의 확신)를 얻을 수 있고, 출격횟수(항공기)또는 더 많은 재래식 폭탄을 투척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럼에도 美 공군 소식통은 적에게 공격을 가하는 대신에 공격횟수를 줄이는 쪽을 더 선호하고,



정밀 타격과 막강한 파괴력을 자랑하는 ATACMS 시스템. 6발의 MLRS 미사일과 함께 발사대에 탑재된다

군사적 행동(campaign)인 공중전력의 임무를 줄이게 되는 출격횟수 감소가 의심스러운 것이라고 전한다.

공군소식통은 1991년 걸프전의 군사적 행동이 표적에 따라 PGM과 유도방식이 없는 재래식 무유도 폭탄을 혼용하여 사용하였고, 이것은 출격횟수를 억제한 것이 아니었으며, 특정무기(순항미사일)를 사용하여 운용의 묘를 찾아 내어 전장에서 더할 나위없는 결과를 얻었다고 확신하였다.

컴퓨터 war game은 실제 일어날 사건들을 예측하여 사전경고를 순식간에 간단히 해줄 수 있으며, 이것은 다른 각도(해결방법)의 결과를 얻게 해준다고 시뮬레이션에 참여하였던 사람은 확신한다.

이 출격횟수의 논쟁은 12시간의 전투시간이 증가된 과정을 시뮬레이션하는 TACWAR모델의 정밀도를 논의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중견 美 공군장교는 TACWAR를 운용하는 경우 커다란 무력충돌을 시뮬레이션하는 운용자가 그들 계획을 모두 적용하고 이에 대한 조건을 입력하기에는 능력의 제한이 따른다고 토로하며 TACWAR 모델이 별로 좋은 도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TACWAR는 현재로서는 가장 신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지만 솔직히 공중군무자들은 이것에 대하여 많은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장교는 지상군의 대량이동이 계기가 있어야 함에 비하여, 공중작전은 하루 일정이면 가능하다고 말한다. 최근에는 걸프전 동안 PGM이 사용된 효과에 대하여 토론의 장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GAO(General Accounting Office)에서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스마트무기가 군과 제조 계약사들에 의해 높은 성공률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높은 비용과 악조건의 기후 때문에 가용성이 낮았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더욱이 국방부는 1개의 폭탄으로 1개의 표적을 강타하는 효과인 유도무기의 성공률과 군사작전에서 폭탄이 가장 적게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지 못하였다고 보고서는 증언하였다.

그러나 국방부관리들은 보고서 내용에서 정밀하게 허술한 부분을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군사작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PGM을 사용하는 우선권에 대해서 논쟁을 제한하였다.

한편 공중전투사령부의 사령관은 전투의 성공률을 자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기는 하지만 1개의 표적에 2개의 폭탄을 투척하는 것보다 1개의 폭탄을 투척하여 성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소신을 밝혔다.

자료 : 〈Defense News〉, 1996. 8. 5~11. p.3, 18

〈국방기술정보〉, 國科研 1996. 11 pp.21~22